

관계사절과 선행사의 지칭관계 연구

김 정 옥
(전북대학교)

Kim, Jeong-ook. 2004. The Referential or Attributive Relation between Antecedent and Relative Clause.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2 (1), 121-135. In this paper I investigate what mood differences are found in a relative clause, what is involved in the change of mood. I also mention a possible underlying form for relative clauses in Spain. And restrictive relative clauses specify the antecedent, while non restrictive relative clauses merely add a quality. I will investigate, in this paper, the five points that have not been defined in the Spanish grammar. In English, it is sometimes difficult to determine the antecedent of the relative pronoun because of lack of subject-verb agreement. In Spanish, since subject-verb agreement is always shown, it is easier to determine exactly the referent of the relative pronoun. The restrictive relative can not occur with proper nouns. The NP that can not be relativized is any NP which has a unique referent. Relativization is possible if the NP has several possible referent. In both English and Spanish, proper name are normally not preceded by the definite article. If the definite article is used, it is because the referent is being used with multiple reference therefore relativization must also occur. In Spanish, the verb of a relative clause may be in the indicative or in the subjunctive mood. Several factors seem to be involved in the change of mood from indicative to subjunctive. In this paper I analyze them one by one, and conclude that no single phenomenon can be taken as a determining factor. The ambiguity can be explained by proposing two indefinite articles which may be distinguished by the features [+/-SPECIFIC]. The way of disambiguating the mood of relative clause is by extending distinction between a referential and an attributive use of definite NP to indefinite NP.] If the antecedent is used referentially, the speaker has a specific person in mind, and he could even have used her name if he had wanted to. If the sentence is used attributively, no particular person is meant, and it is possible that such a person does not even exist.

주제어(Key words): **grammar, verb, mood**

1. 서론

관계사절은 선행사로 불리우는 명사나 대명사를 수식하며 전체 문장 내에서 형용사적인 기능을 한다. 다른 종속절은 문장 내에서 특정한 문법 기능을 수행하는데

반해, 이들 관계사절은 전체 문장 내에서 주어나 목적어의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는 불필요한 요소이다. 어떤 낱말이나 어구의 뜻을 한정한다든지, 또는 어떤 낱말의 뜻에 어떤 다른 뜻의 첨가하는 낱말이나 어구를 수식어라고 한다. 그러나 ‘한정한다’든지 ‘어떤 뜻을 첨가한다’든지 하는 표현은 매우 애매해서, 이러한 뜻에 기초한 기준으로 하는 수식어의 정의보다는 문법적인 정의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선행사와 이를 수식하는 관계사절의 의미-통사적 기능을 명쾌하게 설명해야 한다. 수식어가 구문 안에서 어떤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느냐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는 일정한 낱말을 수식하는 수식어와 이러한 수식어의 수식을 받는 핵심어 혹은 선행사라는 범주를 설정해야 되겠으며 이렇게 문법적으로 연결되는 핵심어와 수식어가 하나의 문법적 단위 내지는 구문을 구성한다. 이렇게 수식어와 핵심어가 연결되어 이루어지는 구문을 내심적 구문이라 칭하며 이를 수식관계로 설명할 수 있겠다. 수식어와 핵심어가 긴밀하게 결합되어서 이루어진 내심적구문에서 수식어는 결국 내심적 구문 안에서 핵심어와 결합하여 하나의 문법적 단위 또는 의미 단위를 구성하는 요소이다.

앞으로 우리는 관계사절과 선행사인 지칭대상 사이의 관계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런 다양성만큼이나 관계사절의 직설법이나 접속법 사용도 여러 가지 맥락에서 논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서법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에 대한 의미적인 측면의 연구가 주요 연구대상이 될 것이다. 동시에 관계사절의 서법차이가 문장전체에 어떤 의미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도 연구하고자 한다.

2. 관계사절과 선행사와의 관계

2.1. 일치

비 제한적 관계사절 동사는 관계대명사나 주절의 주어와 일치할 수 있다. 아래 문장처럼 전체 문장이 계사구문일 경우, 종속절 동사는 관계대명사 *el que*나 *quien*에 일치되거나 주절의 주어 *Yo*나 *Tú*에 일치될 수 있다. 단지 이들이 공 지시관계이거나 관계대명사가 관계사절의 주어가 된다는 통사적인 환경에 한해서이다. 이들 두 가지 유형 모두 문법적으로 정확하지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문체의 문제이다 Gili Gaya(1961: 310).

(1) Yo soy el que {hablé, habló}.

I am the one that talked.

(2) Tú eres el que {has dicho, ha dicho} esto.

You are the one who used to tell.

그러나 스페인어의 일반적인 사용에 비추어 볼 때, 종속절동사는 관계대명사와의 일치가 가장 일반적이나 주절 주어와 일치도 가능하다 Gili Gaya (1961:305).

2.2. 함축된 선행사와의 관계

관계대명사 *que, quien*은 명시적 선행사 없이 사용된다. 즉 선행사가 포함된 관계대명사이다. 이는 선행사가 알려지지 않았거나, 화자가 선행사에 관심이 없을 경우 그리고 *causa, razón, motivo, cosa, asunto, persona*의 의미가 함축된 것으로 파악된다 Gili Gaya (1961:305).

(3) Quienes nada saben todo lo creen.

Those who don't know anything, believe everything.

아래 예문에서처럼 선행사가 명시되어있고 전치사를 동반할 경우, 전치사는 관계대명사보다는 관사 앞에 위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Gili Gaya(1961:305).

(4) Viendo el entusiasmo con que trabajan...

noticing the enthusiasm with which they were working...

(5) Viendo con el entusiasmo que trabajan

noticing with the enthusiasm that they were working...

반대로 선행사가 함축될 경우 즉 명시적인 선행사가 없을 경우, 전치사는 관사 앞으로 위치해야한다 Gili Gaya(1961:305).

(6) Debemos contar sólo con lo que tenemos.

We must count only with that which we have.

(7) *Debemos contar sólo lo con que tenemos.

We must count only that with which we have.

우리는 상기 문장을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4), (5)문장의 심층구조는 *Trabajan con el entusiasmo*. 이기 때문에 전치사는 전치사구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치사는 관사와 결합하여야 한다. 그러나 (6), (7) 문장에서 전치사는 동사구를 구성하는 *suplemento*구문이기 때문에 전치사는 동사구를 구성하는 요소이다. 동사구에 대명사가 삽입될 때는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기 때문에 전치사가 *lo* 오른쪽에 위치할 수 없다.

3. 복수 관계사절과 선행사의 지칭관계

관계사절이 2개 이상 나열될 경우, 관계대명사의 지칭대상을 정확히 결정하기란 어려운 문제이다. 영어처럼 형태적으로 구분이 안 될 경우에는 관계대명사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의미적으로 파악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페인어는 형태소가 발전된 언어이기 때문에 관계사절의 동사 형태소 활용도 경우에 따라, 선행사의 단·복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일치의 문제는 선행사의 지칭관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Alarcos Llorach(1970: 223-224). 아래 예문에서도 관계사절 *evadir*동사활용(단수, 복수활용) 여부에 따라서 선행사의 지칭관계는 결정된다.

(8) Los estudiantes que siguieron la marcha que *evadieron/ evadió la policía causaron el problema.

The students that followed the march that evaded the police cause the problem.

상기 문장에서 관계사절이 선행사 *estudiantes*를 지칭한다면, 통사적으로 좀 더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관계사절과 두 번째 관계사절 사이에 접속사 *y*를 사용하거나 구어에서는 휴지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로망스어 계열의 언어인 스페인어라 할지라도 이처럼 관계사절이 복수일 경우 지칭되는 선행사 관계가 통사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면, 관계사절은 직전의 명사를 수식한다는 일반적인 정의를 기초로 의미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런 정의를 기초로 한 의미파악이 문장의 이해에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와 비문법적인 문장이 될 수도 있는 경우의 문장을 양분하여 설명하고자한다.

첫째, 관계사가 직전명사를 지칭하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아래 (9)문장이다. 아래 문장은 중복된 관계사가 직전 명사를 지칭한다는 가장 일반적인 정의에 기초한 해석을 하여도 의미가 통하는 문법적인 문장이다. 엔진이 잘 작동되면 차가 잘 달리기 때문이다.

- (9) Has visto algún carro que tenga motor atrás que funcione bien?
Have you seen a car that has its motor in the back that runs well?

둘째, 아래 (10)문장을 상기의 가장 일반적인 정의에 기초한 해석을 하면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기 때문에 통사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두 번째 관계사절이 직전 명사를 수식할 경우, 의미가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1) 문장처럼 통사적인 수정을 해야한다. 즉 문법적인 문장이 되려면 접속사 *y* 를 사용해야 된다

- (10) *Has visto alguna vez algún bus que tenga el motor atrás que tenga asientos confortables?
Have you seen a bus that has a motor in the back that has comfortable seats?
- (11) Has visto alguna vez algún bus que tenga el motor atrás y que tenga asientos confortables ?

4. 관계사절과 고유명사와의 관계

관계사절은 지칭되는 명사의 대상이 다양하다. 그러나 고유명사는 관계사절의 수식을 받지 않고 정관사의 수식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고유명사는 그 자체로서 의미가 완벽하므로 그 정체성이 이미 구체화되어있기 때문이다.

정관사란 지칭되는(수식을 받는) 명사의 의미 폭이 넓기 때문에 이를 제한시켜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고유명사 경우, 더 이상의 부가적 수식이 필요하지 않다. 즉 의미 대상이 이미 구체화되어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명사구가 여러 지시체를 갖는 경우 정관사의 수식이 가능하다.

- (12) La Alicia que me gusta es la bonita.
The Alice I like is the pretty one.

아래 예문에서도 고유명사라는 하나의 지시체가 여러 지시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관계사절의 수식을 받아서 고유명사의 지시 의미가 구체화된다. (13)문장은 (14)문장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13) Una Teresa que yo conozco habla muy raro.

A Teresa that I know talks very strangely

(14) Una Teresa que yo conozco, pero a quien tú no conoces habla muy raro.

다음 예문처럼 다양한 의미의 지시를 갖는 고유명사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관계사절 뿐만 아니라 지시형용사의 수식도 가능하다. (15)문장을 (16)문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15) Llegó la Teresa aquella.

That Teresa arrived

(16) Llegó la Teresa aquella a quien acabamos de mencionar.

5. 관계사절의 서법

지금까지 우리는 관계사절과 지칭대상 사이의 통사-의미 관계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류해 보았다. 이런 다양성만큼이나 관계사절의 서법 사용도 여러 가지 맥락에서 논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서법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논의의 초점은 두가지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선행사 명사구를 구성하는 관사의 용법과 이를 수식하는 관계사절의 직설법과 접속법의 용법이다. 정관사는 지칭의 대상이 분명하지만 접속사 관계사절 수식을 받으면 지칭 대상이 어떻게 변하는지와 부정관사의 수식을 받은 명사구는 지칭대상이 애매하지만 직설법 관계사절의 수식을 받으면 지칭대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5.1. 부정관사의 수식을 받는 선행사와 서법관계

우리의 논의는 화자가 특정한 여자를 마음속에 두고 있는냐의 문제 즉 지칭의 문제에 귀결된다. 이처럼 문장의 애매한 의미를 관계사절의 서법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17) Juan quiere casarse con una muchacha que {cocina/cocine} bien

Juan wants to marry a girl that cooks(SUBJUNC/INDIC) well.

첫째, 선행사가 부정관사 수식을 받을지라도 관계사절의 수식여부([+/-SPECIFIC])에 따라서 두 가지 특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지칭대상인 una

muchacha는 부정관사의 수식을 받기 때문에 [-DEF]자질이지만 직설법동사 활용을 하는 관계사절 수식[+/-SPECIFIC]여부에 따라서 [+DEF]자질로 나타날 수 있다.

여기서 결혼하고자 하는 대상인 muchacha 즉 명사구 자체로 보아서는 부정관사 una의 수식을 받기 때문에 구체화된 지칭의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요리를 잘한다는 지칭적 의미는 관계사절의 직설법 동사에 의해서 구체화된다. 상기 (17)문장의 선행사는 [+DEF +SPECIFIC]자질로서 요리를 잘하는 한 명의 여성을 구체적으로 지칭하고있다.

둘째, 명사구를 지칭대상의 용법으로 정의할 것이냐, 속성을 나타내는 용법으로 정의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부정관사 명사구는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지칭의 용법이 아니지만 관계사절 동사가 직설법이면 지칭의 용법인 반면에 접속법이면 속성의 용법이다. (17)문장의 선행사가 지칭대상의 용법으로서 화자가 특정한 여자를 이미 마음속에 염두해 두고 있다면 관계사절은 직설법이다. 부정관사 지칭명사구가 [-DEF]자질임에도 불구하고 직설법동사 관계사절의 수식을 받으면 구체적으로 지칭될 수도 있다. 즉 그 여자의 이름도 밝힐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요리 잘하는 여러 여자 중 한 명의 여자를 언급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부정관사는 기본적으로 지칭대상을 구체화하지 않기 때문에 속성을 나타내는 용법의 측면에서 본다면 관계사절동사는 접속법이어야 한다. 이 경우, 어떤 특정한 여자가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 그런 여자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셋째, 논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존재에 관하여 화자나 문장주어의 편에서 전체를 가지고 차이점을 규명한다.

(18) Juan quiere casarse con una muchacha que {a)cocina / b)cocine} bien.

Juan wants to marry a girl that cooks(SUBJUNC/INDIC) well.

상기 (18)문장은 관계사절동사가 직설법이나 접속법이나에 따라서 지칭대상의 의미가 달라진다. 첫째, 관계사절 동사가 직설법이면 지칭대상은 구체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DEF +SPEC]자질을 나타낸다. 화자는 요리를 잘하는 여자를 마음속에 염두해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속성의 여자는 이 세상에 이미 존재한다. 즉 요리 잘하는 여러 여자들 중에서 한 여자의 존재를 전제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있다.

반대로 관계사절 동사가 접속법이면 지칭대상은 [-DEF, -SPEC]자질을 나타낸다. 요리를 잘하는 그런 속성의 여자를 원할 뿐, 이 세상에 그런 여자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할 수 없다.

5.2. 정관사의 수식을 받는 선행사와 관계사절

영어나 스페인어는 명사구가 지칭용법과 속성의 용법을 나타낸다. 그러나 스페인어는 정관사의 수식을 받아서 지칭의 의미를 나타낼지라도, 명사구를 수식하는 관계사절의 동사가 직설법이나 접속법이나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 정관사 수식을 받는 명사구라 할지라도 직설법동사로 이루어진 관계사절수식을 받으면 지칭의 의미를 나타내는 반면에 접속법 동사활용을 하는 관계사절의 수식을 받으면 속성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이 스페인어의 특징이다.

(19) Juan quiere matar al hombre que vive arriba.

Juan wants to kill the man who lives upstairs.

상기 예문처럼 정관사와 관계사절의 수식을 받는 선행사는 그 구체적 성격이 된다. 관계사절 동사가 직설법인 경우 2층에 사는 사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있기 때문에 지칭의 의미로 사용되고있다.

그러나 접속법 활용을 하는 스페인어의 특성상 아래 예문의 관계사절 동사 서법에 따라 선행사의 성격이 한정은 되지만 구체적이지는 않다. 즉 속성의 의미를 나타내는 용법이다. 중요한 점은 위층에 산다는 조건을 언급한 것이지 구체적인 사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래 문장은 비문법적이다.

(20) Juan quiere matar al hombre que viva arriba.

Juan wants to kill the man who lives upstairs.

관계사절 동사가 접속법인 경우, 현재는 살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2층에 산다는 상태나 조건을 나타낼 뿐 구체적으로 지칭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음 문장은 접속법 관계사절 용법을 설명해주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상기 (20) 문장의 관계사절은 지금은 살고 있지 않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문장의 후치가 가능하다.

(21a) Afortunadamenete nadie vive allí ahora.

Fortunately no one is living there now.

(21b) Por eso, nadie ha pasado a vivir allí.

That is why no one has moved to live there.

(21c) Por eso, el hombre que vivía allí se fue.

That is why the man that was living there left.

(21d) Por eso, es mejor que no alquiles ese apartamento.

That is why it is better that you don't rent that apartment.

상기 b) 문장은 다음 문장과 양립이 가능하다. 화자가 최소한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존재를 내포하고 있다면 (20)문장처럼 존재를 전제하는 정관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구 문장도 문법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정의는 일반적인 규칙으로 볼 수 없다.

(21e) Por eso es mejor que te pases a otro apartamento.

That is why it is better that you don't rent that apartment.

우리는 지금까지 주동사가 미래의 희망을 나타내는 동사를 중심으로 접속절의 서법 문제를 알아보았다. 지금부터서는 주동사가 과거시제를 나타내는 문장 중심으로 분석해보자.

(22) Juan dijo que está enojado con la persona que {lo molesta/ *moleste}.

Juan said that he is upset with the person that bother (INDIC/SUBJUNC) him

(23) Juan dijo que no le hablaría a la persona que {le molesta/ moleste}.

Juan said that he won't talk to the person that bothers (INDIC/SUBJUNC) him

상기 (22)번 문장의 접속법사용은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왜냐하면 그를 귀찮게 하는 사람에게 화가 났다는 표현은 이미 실현된 과거의 사실이고 실제 존재하는 사실의 세계이기 때문에 접속법 활용을 하는 관계사절 문장은 비문법적이다.

그러나 접속법 동사도 미래시제 문장에서는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상기 (23)번 문장에서는 말하지 않겠다는 미래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직설법 형용사절은 아마 화자나 문장 주어에게 알려진 사람을 지칭하는 반면에 접속법은 화자나 주어 모두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는 속성의 의미를 나타낸다. 실제 존재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나타날 것 같다는 의미이다. (23) 문장에서는 관계사절의 서법 차이를 불문하고 그를 귀찮게 하는 누군가가 연결되어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기본적으로 정관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구가 [+DEF]자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접속법 관계사절은 선행사의 성격을 한정하는 속성의 의미([+SPECIFIC])를 나타낸다. *la persona que moleste*가 지칭대상의 의미 폭을 한정시키는 기능은 하지만 구체화시킨다고 볼 수 없다. 즉 관계사절이 속성의 의미를 나타낸다.

따라서 관계사절 서법 차이가 정관사 수식을 받는 지칭대명사의 존재 가능성을 결정할 수는 있다. *la persona* 자체는 구체적인 지칭대상을 나타내는 표현이지만 *que le moleste*라는 접속법동사 관계사절의 수식을 받으면 원래 명사구가 지녔던 구체적인 의미는 없어진다. 반대로 *una muchacha que cocina bien*에서 직설법 관계사절 때문에 부정관사의 수식을 받을지라도 선행사 *una muchacha*는 구체적인 지칭의 의미를 나타낸다. 부정관사 지칭명사구가 직설법동사 관계사절의 수식을 받으면 지칭의 의미를 나타낸다. 반대로 정관사 지칭명사구일지라도 접속법동사 관계사절의 수식을 받으면 구체적인 지칭의 의미는 없어지고 속성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런 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문을 보자.

- (24a) El hombre que mató a esa monja
The man who killed nun
- (24b) (b) se llama Benito
is called Benito.
- (24c) o sea Benito, fue apresado ayer
,namely Benito, was caught yesterday
- (25d) no tiene perdón de Dios.
does not have God's forgiveness.
- (26e) debe estar loco.
must be crazy.
- (25a) El hombre que haya matado a esta monja
The man who has killed this nun.
- (25b) *se llama Benito
is called Benito.
- (25c) *o sea Benito, fue apresado ayer
namely Benito, was caught yesterday
- (25d) no puede ser perdonado.
can not be forgiven.
- (25e) debe estar loco
must be crazy.

상기 문장을 통하여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특정인을 염두해 두고 있느냐의 문제이다. (24) 문장은 구체적인 대상을 지칭하고 있는 반면에 (25) 문장은 범죄행위자에 대한 관심보다는 행위자체에 중점을 두어 설명하는 속성의 용법이다. (24) 문장은 지칭의 의미이다. 중요한 요소는 범죄행위를 한 사람으로 지칭, 구체화되는 명사구 즉 사람이다. 즉, 그러나 (25) 문장에서 *el hombre*는 지칭의 의미이나 접속법 관계사절의 수식을 받아서 구체적인 의미 대신에 속성의미를 나타낸다. 관계사절의 수식을 받는 사람이 문장 의미 파악의 주요변수가 아니라 관계사절의 내용에 해당되는 범죄행위 자체가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따라서 a), b)문장과는 양립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c), d)문장은 양립될 수 있다.

(24) 문장에서 지칭된 사람의 존재여부는 확실하다. 그러나 접속법이 사용된 (25) 문장은 속성의 의미이기 때문에 묘사된 사람을 지칭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비 존재까지 내포하고 있지는 않다. 최소한의 존재여부는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el hombre* 자체가 지칭의미이기 때문에 접속법관계사절의 수식 영향 때문에 지칭대상인 명사구의 지칭의미는 상실했지만 최소한의 존재여부까지도 부정할 수는 없다.

지금까지 우리는 관계사절의 두 가지 용법 즉 지칭적 용법과 속성적 용법을 중심으로 연구해왔다. 영어는 정관사와 부정관사의 수식여부에 따라서 지칭과 속성의 용법으로 구분되지만 스페인어는 관계사절의 서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24), (25) 예문은 서법의 차이에 따라서 지칭과 속성의 용법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다. (24) 문장의 관계사절 직설법은 사실의 세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정관사 지칭대명사의 지칭의미를 강화시킨 반면에 (25) 문장의 관계사절 접속법 때문에 지칭 대명사 *el hombre*의 지칭의미대신에 속성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나 (25) 문장에서도 *el hombre*의 최소 존재 가능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정관사의 기본적인 지칭 의미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5.3. 주절의 시제와 관계사절의 서법 관계

시제는 현재, 과거, 미래로 구성되는 자연의 시제와 문법적인 시제로 구분된다. 현재와 과거의 동사 활용만을 하는 영어와 달리 스페인어는 자연의 시제구분을 충실히 표현하는 현재, 과거, 미래의 동사활용을 하고 있다.

시간을 대과거, 과거 그리고 현재의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볼 때, 이 시제 개념은 관계사절의 문법성과 비 문법성을 구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준이 된다. (26) 문장의 관계사절 동사는 의미의 차이에 따라서, 직설법과 접속법이 사용될 수 있다.

첫째, 관계사절 동사가 직설법인 경우, 과거에 요리를 잘했던 경력의 소유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27)문장구성이 가능하다. 즉 과거에 *Juan*이 요리를 잘하는 여자와 결혼하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과거에도 그 이전 대과거 시점에도 그런 속성의 여자는 존재했었다

둘째, 관계사절 동사가 접속법인 경우, 앞으로 요리를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의 소유자라는 의미로서 구체적인 지칭대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시점에도 요리 잘하는 그런 속성의 여자는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28)의 구성이 가능하다.

(26) Juan quería casarse con una muchacha que {a)cocinaba /b) cocinara} bien.

Juan wanted to marry a girl that cooked well.

(27) Juan quería casarse con una muchacha que cocinaba bien, pero ella no quiso casarse con él.

Juan wanted to marry a girl that cooked well, but she refused to marry him.

(28) Juan quería casarse con una muchacha que cocinara bien, pero nunca la encontró.

Juan wanted to marry a girl that cooked well, but he never found her.

(27) 문장과 반대로 아래 (28) 문장의 접속법 관계사절은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27) 예문에서 과거에 요리 잘 하는 그 여자의 정체성은 확인할 수 있다. 과거에 그런 여자는 존재했었고 현재에 이르러서도 그런 여자의 존재는 지속되고 있다. 반대로 (28)문장에서는 요리 잘 하는 여성의 존재여부는 알 수 없으나 그런 속성의 여성을 원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다음 예문들은 결혼이 과거에 이루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관계사절의 서법은 문맥 파악에 또 다른 규칙을 부여한다. 시제가 과거일 경우, 접속법동사로 이루어진 아래 (29)문장은 비문법적이다. 왜냐하면 관계사절의 동사가 접속법일 경우, 과거에 그 여자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은 여자와 결혼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아래 문장에서 b)동사는 발화의 시점보다는 그 이전의 시점을 언급한 것인 반면에 a)동사는 주절동사의 시점보다 미래 행위를 언급한 것이다.

(29) *Juan se casó con una muchacha que {a) cocine/ b) cocinara} bien.

Juan married a girl that {cooks/cooked} well.

(30) Juan se casó con una muchacha que {a) cocinaba/ b) cocina} bien.

Juan married a girl that {cooked/cooks} well.

과거에 이루어진 행위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접속법 동사를 사용하는 (29)문장도 역시 비문법적이다. 그러나 종속절 동사가 직설법 과거와 현재시제로 이루어진 (30)문장은 문법적인 문장이다. 현재는 요리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 없으나 과거에 요리를 잘했던 여자와 결혼했었다는 의미이다. b)동사는 과거에는 요리를 잘했는지 알 수 없으나 현재에는 요리를 잘하는 여자와 결혼했다는 의미이다. 화자의 시점에서 볼 때, a)문장은 결혼시점의 요리실력을 언급한 반면에 b)동사는 발화시점의 요리 실력에 초점을 맞춘 문장이다. 따라서 주어의 입장에서 볼 때, 관계사절 동사와 주절 동사간에 시제의 일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화자의 입장에서 볼 때 구분되어지는 시제의 차이는 의미 변화를 가져온다.

6. 결론

고유명사는 그 자체로서 의미가 완벽하므로 그 정체성이 이미 구체화되어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부가적 수식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고유 명사구가 여러 지시체를 갖는 경우 관사의 수식이 가능하다

부정관사는 기본적으로 비지칭 의미[-DEF]이지만 관계사절동사가 직설법이나 접속법이나에 따라서 지칭대상의 의미가 달라진다. 관계사절 동사가 직설법이면 지칭대상은 [+DEF +SPEC]자질을 나타낸다. 반대로 정관사의 지칭의미[+DEF]는 접속법 관계사절의 수식을 받으면 [-DEF, +SPEC]자질을 갖게된다. 즉 접속법동사의 영향으로 지칭의미가 약화되어 속성의 의미를 나타낸다.

(31) Juan quiere casarse con una muchacha que {a)cocina/ b)cocine} bien.

(32) Juan quiere casarse con la muchacha que {a)cocina/ b)cocine} bien.

상기 (40)문장에서 관계사절 동사가 직설법이면 화자는 요리 잘하는 여자를 마음 속에 염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런 속성의 여자는 이 세상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 그런 속성을 갖춘 여자의 존재여부는 화자의 지식 안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름도 거명할 수 있다.

반대로 (41)번 문장의 선행사 *muchacha*가 정관사 *la*의 수식을 받아 구체적인 지칭관계를 나타낼지라도 관계사절 동사가 접속법일 경우, 문장전체 의미는 요리를 잘하는 속성의 여자를 원할 뿐, 이 세상에 그런 여자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정관사는 지칭의미가 아니라 속성의미를 나타낸다. 즉 정관사 지칭대명사는 그 자체로서 지칭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관계사절의 접속법동사는 선행사에 근본적인 의미의 변화를 가져온다.

관계사절 동사를 통하여 주어의 시점에서 본 시제의 차이를 볼 수 있다. 과거에 이루어진 행위라는 측면에서 볼 때, 관계사절의 접속법 동사로 구성된 문장도 역시 비문법적이다. 그러나 종속절 동사가 직설법 과거와 현재시제로 이루어진 문장은 문법적이다.

참고문헌

- 김정옥. (1996). 스페인어 서법에 관한 통시적 연구” *서어서문연구*, 제6호, 591-611.
- 김정옥. (2003). “서법이론의 발달과정(19, 20세기)”, *서어서문연구*, 제27호, 31-58.
- 김정옥. (2003). “19,20세기 전통문법의 접속법이론 발전과정: 목적어절과 독립절을 중심으로”, *서어서문연구*, 제28호, 119-134.
- Alarcos Llorach, E. (1977). *Gramática Estructural (Según la Escuela de Copenhague y con especial atención a la Lengua Española)*, Madrid: Gredos (2ª ed.).
- Alarcos Llorach, E.(1970). *Estudio de Gramática Funcional de Español*, Madrid: Gredos (3ª ed.).
- Bello, A. (1989). *Gramática de la Lengua Castellana Destinada al Uso de los Americanos*, Con la nota de Rufino José Cuervo(est. y ed. [crít.] de R. Trujillo), 2 Vols., Madrid: Arco/Libro, (ed. orig., Santiago de Chile, Imprenta del Progreso, 1847; 1 ed. con n. de R.J. Cuervo, Bogotá, 1874).
- Fillmore, C. (1967). "The Case for Case" in Bach, E. and R. Harms (Eds), *Universal in Linguistic Theory*, 1-88.
- Gila Gaya, S. (1990). *Curso Superior de Sintaxis Española*, Barcelona: Vox-Bibliograf (15ª ed.).
- Palmer, F. R. (1977). "Modals and Actuality" in *Journal of Linguistics*, 1-23.
- Real Academia Española. (1982). *Esbozo de una Nueva Gramática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Espasa-Calpe (8ª ed.).
- Stockwell, Robert, Paul Schachter, and Barbara H. Partee. (1985). *The Major Syntactic Structure of English*,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502-555.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전북대 인문대

Tel: 061)725-3375, 011-685-0300

E-mail: buenos7@hanmail.net

논문 접수일: 5 Ján, 2004

심사완료일: 20 Feb, 2004

게재확정일: 20 M ár, 2004